

총회

배포: 일반

2023년 7월 11일

원문: 영문

78회

아젠다 아이템 25 (b)*

세계의 사회적 상황, 청년, 고령화 및 장애인, 가족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 사회 개발

세계의 사회적 상황 2023: 고령화 속 함께 살아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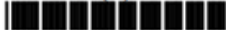
World social situation 2023: leaving no one behind in an ageing world

본 보고서는 사무국에 의해 작성됨

요약: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인류가 거둔 전례없는 집단적 성공을 뜻한다. 본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 과정에서의 경제적 및 사회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대한 정책 권고를 제시한다. 이 보고서는 '세계의 사회적 상황 2023: 고령화 속 함께 살아가기'의 주요 결과를 보여준다.

* A/78/150.



I. 서문(Introduction)

1. 인구 고령화는 결정적인 세계적 추세이다. 사람들은 더 길게 살며, 전세계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건강, 생존 및 임신의 감소는 모든 국가와 지역에서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중대한 변화를 이끈다. 국가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어려움과 기회를 모두 가져온다.
2. 2022년은 세계가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채택한지 20년이 되는 해다. 이러한 획기적인 협정은 모든 연령의 사람에게 공평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탄생시킬 국가 정책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 협정을 기념하기 위해서 본 보고서는 인구 고령화가 가져온 경제사회적 영향의 결과를 요약하며, 전 생애에 걸친 노인의 권리와 웰빙을 입법의 중심에 두기 위한 권장사항을 제공한다.
3. 인구 고령화는 더욱더 긴 수명과 작아진 가족을 향한 인구학적 변천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인구 고령화는 단순히 특정 연령 이상인 집단에게만 적용되는 일련의 분리된 문제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고령화는 의료 서비스 및 교육에서부터 고용 및 세금까지 경제와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 삶의 각 단계는 노년의 웰빙에 기여를 하거나 손상을 가할 수 있다.
4. 인구의 연령대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는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막대하지만, 전체 행동과 정책 결정이 인구 고령화의 길과 결과들을 형성할 수 있다. 인구 고령화에서 비롯된 혜택을 누리고 적응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중요한 조치를 미룸으로써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가 높은 사회, 경제, 재정 및 건강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대조적으로, 미래에 대한 통찰과 계획을 통하여 정부는 인구 고령화의 문제를 관리하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고,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되는 기회를 강화할 수 있다.

II. 고령화는 성공의 이야기이다(An ageing world is a success story)

5.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 수십억 인류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거둔 공동 성공임을 시사한다. 향상된 위생과 의학적 요법, 교육 및 가족 계획에 대한 더 큰 접근성, 젠더 평등 및 여성의 권한 강화(empowerment)를 향한 큰 걸음은 높은 출산율 및 높은 사망률의 낮은 출산율 및 낮은 사망률로의 꾸준한 이동에 기여를 했고, 어떤 경우에는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에서 이익을 얻는다. 이러한 발전은 인구의 급증은 서서히 끝나고, 노년층 인구로의 점진적이며 영구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시대의 막을 올렸다. 몇십 년 넘게 노인의 수와 노인 인구의 비율은 세계적으로 증가했으며, 어린이와 청년의 수 및 인구 비율은 하락하기 시작했다. 2050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16억 명을 초과하여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최근의 인구 고령화는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및 대부분의 동아시아와 동서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하다. 이 지역들의 노인(본 보고서에서 정의된 대로 65세 이상)의 비율은 전체 인구의 10%

를 초과하며, 몇몇 경우에는는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한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및 오세아니아의 대부분 지역(호주 및 뉴질랜드 제외)은 인구 연령 전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대부분은 중간 단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7. 대부분의 국가에서 생애 전반에 걸친 사망률의 감소가 나타났으며, 이는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장수는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연령 범위를 줄였다. 과거에는 모든 연령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 예를 들어, 많은 어린이가 전염성 질병으로 사망했고, 여성은 출산 중에 사망하는 일이 빈번했다. 오늘날 많은 국가에서 60세 혹은 70세 이전에 사망하는 “조기 사망”이 상대적으로 드물다.

8. 세계적으로 높아진 기대 수명은 곧 건강 분야에서 이룩된 개선을 반영한다. 데이터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건강한 상태에서 사는 햇수가 늘어났는데, 이는 살아온 총 햇수의 증가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통계 평균은 성별 및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나타나는 기대 수명의 광대한 차이를 감추고 있다. 거의 모든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오래 살며, 부유층은 빈곤층보다 오래 산다. 영양실조 및 환경적, 직업적 위험에 소득과 교육이 제한된 사람들이 더 흔하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차이가 부분적으로 발생한다.

9. 2020년, 세계보건기구와 UN은 2021에서부터 2030년을 건강한나이듦10년(Decade of Healthy Ageing)으로 지정했다. 10년에 걸쳐, 세계보건기구와 UN은 노인의 웰빙을 지원하는 증거기반 전략을 추진했다. 세계보건기구와 UN은 인간이 노화함에 따라 기능적 능력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것을 옹호하며, 개인의 내재적 능력 및 주변 환경, 이 두 요소 간의 상호작용에 기능적 능력이 달라짐을 인정한다. 건강한나이듦10년은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을 기반으로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시기와 일치한다.

III. 인구 고령화는 경제적 보상과 어려움을 가져온다(Population ageing brings economic rewards and challenges)

10. 경제적 생산과 소비의 수준은 생애 주기에 걸쳐 달라진다. 전형적으로, 인생의 중반 단계에 다다른 사람들은 소비보다 생산을 더 많이 하며, 노년의 경제 보장을 이루고, 부양자에게 의존하는 자녀 혹은 기타 피부양자를 부양하기 위하여 잉여금을 생성하려고 한다. 인구학적 변환은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먼저 증가한 후에 감소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초기 증가는 출생률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며, 인구 내 아동 및 청소년의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 연령층의 상대적 비율의 감소는 고령자 비율의 급속한 증가에 의해 야기된다.

11. 생산가능인구의 비율이 늘어날 때, 국가가 경제적 이득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다. 그러나 “인구배당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 및 보건에 대한 투자의 유지 및 확대, 생

산적 고용 기회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젊은층의 인력 시장 진입 증가가 필요하다.

12.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비 및 생산 패턴이 변화하는데, 노인은 인구학적 변환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제공한다. 다수의 노인이 유급 노동을 한다. 가족 내에서는 노인이 종종 가족 구성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아동 돌봄을 보조한다.

13. 그러나 노년부양비¹와 같은 표준 인구학적 지표는 노인이 하는 기여를 고려하지 않는다. 게다가 다수의 노인은 여전히 기여를 하는 데 있어 장애물을 마주한다. 예를 들어 노동 시장 내의 연령차별은 노인의 완전한 경제 참여를 저해한다.

14. 노인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한 노동을 계속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노동 및 소득 창출 능력은 결국 약화하기 마련이다. 인구가 노화함에 따라 연금, 의료 서비스 및 장기 요양 비용은 증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령별로 자원을 분배하는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증가하는 노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15. 다양한 국가에서 노인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다르다. 보다 발전한 지역은 연금 및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공공 이전 체계가 노인의 소비의 3분의 2 이상을 제공한다. 개발도상 지역에서는 노인이 더 오래 노동하고, 축적된 자산이나 가족의 지원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구 고령화 과정의 모든 단계에 있는 국가는 노인 지원 방식이 적절하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동 시장, 연금 및 의료 체계에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16. 낮아진 출산율은 가족과 사회에 아동의 교육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었다. 인생이 더 길어질 것을 예상하여, 개인 저축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경우 자본 축적, 생산성 증가 및 경제 성장 속도의 축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저축이 생산적으로 투자되는 한 계속될 수 있다.

1 노년부양비율은 노인 인구 크기를 생산가능인구 크기에 비교한 수치이다. 연대적이고 정적인 방식으로 노인 집단을 정의했을 때, 노년부양비율은 시간 경과에 따른 노인의 건강 및 활동 수준의 변화나 다양한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이 비율을 계산할 때, 노인을 포함하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을 제외함으로써 생애에 걸친 연령과 관련된 부양에 대해 불완전한 모습을 제공한다.

IV. 노년으로 가는 길은 불평등하다(Paths to older ages are unequal)

17. 노년 인구의 증가의 원인이 되는 건강과 생존에서 넓은 범위의 개선이 적용되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많은 노인이 건강한 상태로 살지만, 다른 노인은 다종의 질병과 심각한 장애와 함께 살고 있다. 어떤 노인은 경제적으로 활동적이며, 소득 안정을 누리지만, 다수의 노인은 빈곤하게 산다. 인구 평균은 광대한 불평등 및 노인의 욕구와 능력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빈곤은 나이가 들에 따라 증가한다.

18. 노인 빈곤의 감소는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PA)의 핵심 목표이다. 노인은 빈곤의 수렁에 빠질 특정한 위험을 마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은 건강 문제, 가족에 대한 책임 혹은 법적 은퇴 연령으로 인하여 점점 일을 적게 하게 되거나 완전히 그만두게 된다. 차별은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 많은 노인이 여전히 생산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국가 경제, 지역사회 및 가족에 대한 노인의 기여 중 많은 부분은 공식적으로 인정되거나 보상되고 있지 않다.

19.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따르면,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노인은 일반적으로 생산가능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비교적 가난한 가정에 살 가능성이 더 높다.² 고령자와 생산가능인구 간의 가난의 수준 차이는 개발도상국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사회 보호 체계와 교육 및 의료를 포함한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필수 서비스를 갖춘 국가는 이러한 체계가 부재하는 국가보다 노년 빈곤을 감소하는 것에 더 성공적이었다.

20. 경제적 난점을 넘어서서, 노인은 또한 사회적 배제의 위험을 악화하는 부분적이고 사회적인 장애물에 마주하게 된다. 나이가 들며 장애가 심해지는 현상을 보이지만, 보조 인프라는 종종 부족하며, 자주성, 이동성 및 공간, 시장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된다. 50세 이상 노인은 15세에서 49세 사이의 사람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낮으며, 사회적 소통과 사회적 지지가 더 적다고 보고했다.³ 연령 차별의 배경 하에서, 50대 이상의 사람들⁴은 스스로 삶에 대한 대안성이나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존엄성과 존중을 갖고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2 세계의 사회적 상황 2023: 고령화 속 함께 살아가기(World social situation 2023: Leaving No One Behind in an Ageing World) 참조. UN, 2023, 4장, 연령에 따른 상대 빈곤 및 소득 불공평.

3 경제 협업 및 개발 기관, 잘 지내요? 2020: 웰빙 측정하기(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참조. (파리, 2020)

4 세계보건기구 연령주의 세계 보고서(Global Report on Ageism), 4장 참조. (제네바, 2021)

21. 빈곤과 불평등은 어린 시절에 뿌리를 내린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정책이 없다면, 이러한 불이익은 사람들의 삶 전반에 걸쳐 서로를 강화하여 노년기에 큰 격차를 초래하게 된다. 교육

과 고용은 노년기를 포함한 인생의 모든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과 경제적 결과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나타난다. 개인의 교육 수준은 물론 부모의 교육 수준 또한 소득, 건강 관리 접근성, 생활 방식 및 사회적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친다. 고용과 건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고용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노동의 유형, 근무 조건 및 일자리 유무는 사람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은 노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22.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내의 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수준의 경제적 불안정과 지속적인 사회적 배려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 길어진 기대 수명 및 미래 은퇴 소득을 감소시키는 정책 개혁은 이러한 추세를 악화시킬 수 있다.

고령화의 미래는 더욱 불평등해질 수 있다.

23. 불평등은 생애 과정에 걸쳐 진화하며, 각 세대마다 다르다. 대체적으로, 오늘날의 젊은이는 이전 세대보다 건강하며 더 잘 교육받았다. 더 나아가, 이들은 평균적으로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것이라고 예상된다. 코비드-19 팬데믹이 준 지장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준은 계속하여 높아질 것이다.

24. 동시에, 오늘날 젊은이들은 성인기에 접어드는 변환기에 지대한 불확실성과 경제적 불안정을 겪는다. 세계 노동의 근본적인 변화는 직업 안정성에 영향을 주고 소득 보장을 저해한다. 다수의 개발도상국에서는 비공식 고용이 여전히 일반적이다. 또한, 자발적 일시적, 파트타임 및 임시 고용을 포함한 기타 불안정 고용 형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 비표준 계약으로 고용된 노동자 중에서는 젊은층, 여성, 이주민 등 기타 불이익을 겪는 집단의 비율이 높다.

25. 노동 시장 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격차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에 따라 높은 수준의 불공평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데이터를 보유한 대부분 국가의 발달된 지역 및 개발도상 지역에서 소득 불공평은 최근 10년간의 출생 코호트에서부터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였다.⁵ 이러한 증가는 미래의 노인 코호트 내에서 건강 및 기대 수명의 격차를 촉진할 수 있다. 게다가 지속적인 비공식 노동의 문제와 노동 시장의 증가하는 불안정성은 적절한 연금 및 기타 사회 보호 혜택에 대한 접근을 위협하고, 많은 노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항하기 위한 신속하고 대담한 정책적인 조치가 없이는 노인의 생활 수준이 점점 불평등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5 세계의 사회적 상황 2023: 고령화 속 함께 살아가기(World social situation 2023: Leaving No One Behind in an Ageing World), 4장 참조.

V. 젠더 차이는 불평등한 나이들을 야기한다(Gender disparities drive

unequal ageing)

26. 노년의 빈곤 수준은 전형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에게 높게 나타난다. 여성 노인이 경제적으로 더 불안정한 것에 대한 여러 이유가 존재한다. 모든 연령대의 여성의 공식 노동 시장 참여 수준은 남성에 비해 낮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짧은 직업 경력과 낮은 임금을 받는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더 긴 점을 고려하면,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유족이 될 경우가 더 높으며, 재혼할 가능성이 낮고 혼자 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은 경제적 불안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27. 여성은 또한 부양 부족에서 기인한 타격을 받는다. 가족 안에서 이뤄지는 돌봄과 집안일의 불공평한 분배는 여성의 직장 생활을 단축시키고 연금 소득에 제한을 둔다. 노동 시장에서, 제대로 규제가 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돌봄 경제의 비공식 및 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돌봄자는 대부분 여성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삶의 말미에서, 여성 노인은 더 길게 살고, 연령과 관계있는 장애를 가질 위험이 남성 노인보다 더 높기 때문에, 여성 노인이 장기 요양이 필요할 가능성이 더 높다.

28. 노년의 경제적 보장에 있어서 개인의 부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노동 시장의 난점과 불공평한 돌봄 부담은 여성이 부를 축적할 능력에 영향을 준다. 여성은 또한 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다. 190개국 중 76개국에서 여성의 재산권은 제한된다.⁶

29. 젠더 평등은 가족 내 돌봄 의무를 재조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가정 책임과 시장 고용을 모두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 및 노동 정책의 채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 생산성을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 시장 참여의 증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여성의 경제적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의 젠더 차별을 없애고 여성 및 남성 모두에게 적절한 일자리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돌봄 노동을 공식 경제에 지속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적절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의 고용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6 세계 은행, 여성, 일, 법률 2023(Women, Business and the Law 2023) 참조. (워싱턴 DC, 2023).

VI. 장기 요양에 대한 요구가 치솟고 있다(Long-term care needs are

soaring)

30. 노인 인구, 특히 80세 이상 노인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 요양에 대한 요구가 다수의 국가에서 치솟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거 가족 구성원으로서 보통 무급으로 활동하는 여성과 여성 청소년이 노인 돌봄 요구를 충족해 왔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세대 간 동거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가족에 완전히 또는 주로 의존하는 돌봄 모델은 점점 더 부적절해지고 있다.

31.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 지출이 충분하지 않았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의 평균 지출은 2016년과 2020년에 모두 국내총생산의 1%를 약간 넘어섰다.⁷ 부족한 자금 지원은 돌봄인력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게 하고, 저임금을 받게 하고, 불충분한 교육을 받고 종종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게 만든다. 잘 훈련된 돌봄 인력의 부족은 돌봄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다수의 국가 중 심지어 부유한 국가조차도 계속해서 유급 또는 무급 돌봄인력의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32. 코비드-19 팬데믹은 노인을 위한 의료 서비스, 특히 장기 요양이 갖고 있던 기존의 약점을 드러냈다. 또한, 이러한 약점이 어떻게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저품질의 자금이 부족한 돌봄 체계, 가정 내 돌봄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유급 돌봄인력의 낮은 임금 및 불안정한 근무 조건 및 의료 시설 내 코비드-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의 부재가 노인 사망률의 증가에 기여했다. 이러한 위기는 장기 요양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33. 노인에게 무급 돌봄 혹은 보상이 잘되지 않는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기여는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적절한 규제, 훈련 및 돌봄 인력 지원 및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인증 및 모니터링을 포함한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통합 장기 요양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의무 공공 보증을 도입함으로써 장기 요양에 대한 본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돌봄 인력을 위한 공식 고용 촉진 및 근무 조건 개선은 고품질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장기 요양에 대한 접근 방식의 재고는 오늘날의 노인 및 노인의 돌봄인력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인과 노인의 돌봄인력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7 계산은 경제 협력 개발 기구 회원국의 보건 통계에 의거하여 산출함. (2023년 6월 22일 통계 기준)

VII. 고령화 세계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이행이 필요하다(Leaving no one behind in an ageing world requires

policy action now)

34. 본 노트는 모든 연령대를 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두 가지의 대응 조치를 강조한다. 첫 번째 대응 조치는 일생에 걸쳐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노동 시장 참여 및 생산성 증대, 건강 유지 및 빈곤 예방의 촉진이다. 두 번째 대응 조치는 노년 불평등을 감소하고, 공정하고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경제적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연금과 의료를 모두 고려한다.

노인이 겪는 불리함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출생과 함께 시작된다.

35.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강과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나이들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출생부터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촉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모든 어린이는 고품질의 교육과 의료를 통하여 능력을 발전시키고 향상할 수 있어야 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및 노동 시장을 고려했을 때, 교육은 유년기나 초기 성인기 후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는 학습과 기술 개발 기회는 노동 수요의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기술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한다.

36. 교육의 향상은 노동 생산성의 증가와 빈곤 및 불평등의 감소를 불러오지만,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과 결합될 때만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품질 또한 중요하다. 비공식 부문에서의 고용은 종종 노동자 생산성이 낮고 사회 보장 프로그램에도 접근이 제한되며, 공공 수입에 미미한 기여를 한다. 동시에 수십 년간의 임금 침체는 저임금 노동자가 노년을 대비하기 위해 저축하기 위한 능력을 위협한다.

37. 노동 제도에 대한 투자 증가는 - 규정 및 고용 계약에서부터 단체 합의, 노동 감사 체계 및 포괄적 사회 보호 체계까지 - 공식화 경로의 가속화, 생산성 증가 및 고령화된 세계에서의 사회 계약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의 비공식 부문을 공식 부문으로 변환하는 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 전환 과정 동안 국가는 점진적으로 비공식 경제의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 보호 체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38. 노동의 젠더 평등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여성에게 불공평하게 부과되고, 여성의 평등한 노동의 참여를 저지하는 가정 돌봄 노동의 부담의 감소는 고용 및 사회 참여의 중심 목표가 되어야 한다. 육아 휴직에서부터 공공 아동 돌봄 서비스 및 피부양 아동 세금 혜택과 같은 정책은 무급 가사 노동의 공정한 부담을 육성하고 유급 직장 내 여성의 평등한 기회를 촉진할 수 있다.

노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금이 요구된다.

39. 인구 고령화가 진전된 국가는 공공 지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특히 의료 보험 및 연금에 대한 공공 지출이 주요 문제이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된 일부 연금 제도 개혁은 전반적으로 적용될 때 저소득층의 소득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0. 대부분의 공적 연금 체계는 특히 저임금 직종의 증가하는 불안정성과 같은 고용 패턴의 변화

에 발 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 코비드-19 팬데믹과 이전의 위기들은 전반적으로 공공 이전(public transfer) 감축의 위험성을 드러냈다. 연금 비용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데 있어 정부는 반드시 연금 불평등 감소를 위한 역할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연금 기금과 관련한 금융 위험을 개인에게 전가하거나 집단적 위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노년기의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정을 증가시킬 수 있다.

41. 포괄적 사회 보호 체계가 없는 국가는 연금 보장성의 확장,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타겟 1.3의 달성을 위한 충분한 보조금 제공 및 공공 연금 체계의 재정 조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⁸ 연금 보장성의 확장에 있어서 일괄 적용이 가능한 해결책은 없지만, 모든 노인의 재정 안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조치가 존재한다. 첫 번째 해결책은 개인 저축을 장려하고 금융 리터러시를 향상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해결책은 모든 노인이 기본적인 수준의 소득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금으로 지원되는 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해결책은 노동 제도를 강화하여 비공식 고용에서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모든 연령대의 경제적 안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42. 연금 보장 범위의 확장 및 적절성 보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재정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저소득 노동자 혹은 중산층에게 조세 부담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정부 수입의 증가는 불가능하다. 인구 고령화가 어떻게 다른 종류의 조세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정부는 예측 가능한 재정 압박에 대비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 개혁을 채택할 수 있다. 다수의 개도국의 최우선 사항은 세제 수익 창출을 위한 능력의 향상이다. 여기에는 비공식 고용에서 공식 고용으로의 전환 촉진 및 탈세를 해결하고 세무 행정을 강화하는 일이 포함된다. 이러한 노력은 조세에 관한 효과적이고 포용적인 국가 협력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43. 인구가 나이듦에 따라, 모든 국가는 노인에게 현재 지원 체계의 장기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면서 적절한 연금과 돌봄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 노인 세대가 오늘날의 노인 세대보다 불공평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연금 체계는 반드시 재정적으로 실행가능해야 하지만, 연금 체계의 재분배적 힘을 약화시키는 연금 개혁은 늘어나는 노인의 웰빙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이러한 개혁이 비효과적이고 불공평하게 보여진다면, 연금 체계를 유지하는 국가의 능력 또한 과소평가 하는 것이다.

8 타겟 1.3은 “바닥층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국가적으로 올바른 사회 보호 체계 및 조치의 이행과 더불어 2030년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상당한 보장을 이룩하는 것”이다.

44. 전 연령과 세대를 아우르는 불공평을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행위에는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오늘날 국가 내부 및 국가 간 부유층과

빈곤층을 가르는 막대하고 지속적인 분열이라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VIII. 고령화를 중심에 두기(Putting ageing at the centre)

45. 세계는 계속해서 웰빙과 경제적 번영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불안정한 쇼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3년이 넘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겪은 후, 취약한 사회경제적 회복 상황 속에서 다수의 인도적 위기가 불가피하게 나타났다. 기후 변화는 전례 없는 가뭄과 홍수를 야기하며, 전 세계 식량 공급에 더 심한 압박이 가해지고 많은 사람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 이러한 위기들 이전에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진전은 이미 매우 느린 상태였다. 부족한 진전을 야기하는 근본적 원인은 오랜 세월 동안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수십 년 동안 그 합산 영향력 또한 커져갔다.

46. 인구 고령화를 해결할 정책 옵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한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길을 개척하고 이에 대한 약속을 갱신하며, 총회에 정보와 정책 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여러 위기 이후의 재건과 2030 지속가능한 발전 아젠다 실행의 개선은 인구 고령화의 문제를 관리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국가 및 다자간 수준의 정책 대응에 달려있다.